

시온 주보

제2535호
2024년 12월 22일(다해)

대림 제4주일

성모님의 방문

마리오토 알베르티넬리
(Miotto Albertinelli, 1474-1515)
1503, 패널에 유채, 232×140cm
우피치 미술관, 이탈리아 피렌체



입당송 | 이사 45,8

하늘아, 위에서 이슬을 내려라. 구름아, 의로움을 뿌려라. 땅은 열려 구원이 피어나게 하여라.

제1독서 | 미카 5,1-4ㄱ

화답송 | 시편 80(79),2ㄱㄷ과 3ㄴㄷ.15-16.18-19(◎ 4)

◎ 하느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 당신 얼굴을 비추소서. 저희가 구원되리이다.

○ 이스라엘의 목자시여, 귀를 기울이소서. 커룹들 위에 좌정하신 분, 광채와 함께 나타나소서. 당신 권능을 떨치시어, 저희를 도우러 오소서. ◎

○ 만군의 하느님, 어서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살피시고, 이 포도나무를 찾아오소서. 당신 오른손이 심으신 나뭇가지들, 당신 위해 키우신 아들을 찾아오소서. ◎

○ 당신 오른쪽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 위해 키우신 인간의 아들에게 손을 얹으소서. 저희는 당신을 떠나지 않으오리다. 저희를 살려 주소서. 당신 이름을 부르오리다. ◎

제2독서 | 히브 10,5-10

복음환호송 | 루카 1,38

◎ 알렐루야.

○ 보소서,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

복음 | 루카 1,39-45

영성체송 | 이사 7,14 참조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또 다른 마리아들이 되기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 | 작은 형제회(프란치스코회)

성탄을 코앞에 둔 대림 제4주일에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납니다. 두 분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들입니다. 그러나 본받아야 할 지점은 다릅니다. 엘리사벳은 아이를 못 낳는 여자, 즉 석녀였으나 하느님의 사랑을 낳았고,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 처녀로서 하느님의 아드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 차원에서 하느님을 낳는 것을 배웁니다.

첫 번째로 어떻게 엘리사벳처럼 석녀이면서도 하느님의 사랑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석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영적 석녀가 되어 인간을 낳는 데는 불가능자가 되고 하느님을 낳는 데는 가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정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이자 되고 싶습니까, 인간적인 능력은 없지만 하느님을 낳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는 능력 지상주의 사회이고 그래서 갖가지 스펙을 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수도자들도 성덕으로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기보다 능력으로 세상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고, 그래서 자기 계발을 위해, 자격증을 얻기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러나 이래서는 하느님을 낳을 수 없으니 하느님을 낳는 사람이 되려면 오늘 복음의 엘리사벳과 많은 성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의 무능력자가 되

어 하느님의 능력을 힘입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는 마리아처럼 자기를 포기하고 하느님을 낳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빈 자궁을 만들고 나를 빈 구유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제 생각에 그것은 자기 뜻을 포기하고 하느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요, 공동선을 위해 자기주장을 꺾고 다른이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며,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자기 말은 줄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고, 오늘 히브리서의 주님처럼 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려 왔습니다."(10,9)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모 마리아가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루카 1,38)

성탄까지 얼마 남지 않은 오늘, 나의 말을 하느님께 봉헌함으로 나를 빈 자궁과 구유로 만들고, 하느님의 말씀을 내 안에 모심으로써 하느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또 다른 마리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신성한 사랑과 순수하고 진실한 양심을 지니고 우리의 마음과 몸에 그분을 모시고 다닐 때 우리는 어머니들입니다. 표양으로 다른 이들에게 빛을 비추어야 하는 거룩한 행위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낳습니다."(《신자들에게 보낸 편지》 10절)



성모님의 방문

이 그림은 성모님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 만나는 장면으로, 두 사람의 만남은 극도로 가깝고 친밀하며 아름답게 표현되었습니다. 금속 재질의 느낌이 나는 옷과 기둥의 색은 빛을 통해 더욱 강조되어 마치 기념상과 같은 모습의 엄숙함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두 분에게 순명과 믿을 그리고 한없이 자신을 낮출 줄 아는 겸손을 배웁니다.



성화해설

더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신지철 바오로 신부 | 교구 성미술 담당

기도로 이어지는 사랑



장희진 로사 | 배우

제가 하느님을 알고 지금껏 그분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다 저희 외할머니 덕분입니다. 할머니에 대한 기억을 헤아려보면, 방 한쪽에서 열심히 기도드리시던 모습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친척들이 저희 집에 한 끼번에 올 일이 있어도, 항상 할머니는 저녁에 함께 기도하자며 가족들을 모으셨었습니다. 두런두런 둘러앉아 할머니와 함께 묵주기도를 드리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또, 그렇게 묵주기도가 끝나고 나면 다시금 방에 홀로 들어가서 기도를 이어가시던 모습까지도요.

할머니는 항상 기도하며 사신다는 것이 삶에서 느껴지는 분이기도 하셨습니다. 너무나 인자하신 분이셨고, 저는 끝내 할머니가 화를 내시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어떤 실수를 하고 주저앉아 있더라도 매번 웃으면서 받아주셨죠. 이제는 돌아가신 지 정말 오래됐지만, 여전히 할머니의 기도하던 모습과 인자한 표정이 잊히지 않습니다.

할머니 품에 안겨 어리광만 부리는 어린 손녀로 평생 살 것만 같았는데, 한 살 두 살 먹은 끝에 이제 저도 훌쩍 어른이 되었습니다. 나이 들어가며 점점 더 인격적으로 성숙한 결실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일까요, 요즘은 제가 좋은 어른이 될 수 있을까, 할머니처럼 살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나름 꾸려간다고는 하지만, 살다 보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소홀해질 때가 많기 때문이죠. 일이 안 풀릴 때면 신앙인다운 대처라는 것은 생각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초보 신앙인에게 세상은 때로 험난하게 느껴집니다. 착하게만 살고 싶지만 모진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을 겪게 될 때도 있고, 선의를 악용당하며 호구 취급 받을 때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오른뺨을 때리려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이 세상 속에서 왼뺨마저 들이미는 삶이 과연 가능할까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 할머니처럼 살고 싶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손해 볼 줄 알며, 남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더 많이 지나 저도 할머니 나이가 되었을 때, 뒤돌아보면 제 모습이 할머니와 조금은 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할머니처럼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자는 방향을 품고자 합니다. 여전히 감정이 널뛰 때는 어디까지 참아야 하는 것인가 헷갈릴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오히려 기도하며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여기까지 오면서 지금보다 훨씬 모질었던 성격도 기도 덕분에 그나마 둥글둥글해진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어쩌면 어릴 때 할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안에서 저 자신을 다스려가는 과정이 시작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기도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좋은 영향을 주신 할머니께 감사드리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한
낱
말

“두려움과 고난의 시대…
대림 시기는 짓눌린 마음을 일으키는
은총의 때입니다.”

- 프란치스코 교황님, 지난 12월 1일 삼중기도 훈화 중 -

훈화 전문을 살펴보세요!





교황님 메시지 담은 WYD 십자가, 성모 성화 한국에 오다!

2024년 11월 24일~29일



지난 11월 24일, 한국 청년들이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WYD 상징물인 십자가와 성모 성화를 전달받았습니다. 나무 십자가는 제1차 대회 때부터 자비롭고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WYD의 대표 상징물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WYD가 개최될 때마다 나무 십

자가는 청년들의 손으로 전 세계를 순례해 왔는데, 이 모습은 그야말로 WYD 판 ‘성화 봉송’이라고 부를 만합니다. 나무 십자가와 더불어 또 하나의 상징물인 ‘WYD 성모 성화’도 함께 우리 청년들의 손에 전달됐습니다. 청년들은 교황님께서 보시는 앞

에서, 직전 대회를 개최했던 포르투갈 청년들에게 두 상징물을 전달받았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서는 “온갖 충돌과 전쟁으로 얼룩진 세상에서 이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11월 29일에는 명동대성당에

▶ 온라인 서울주보 #알려드립니다
행사 스케치 영상이 궁금하시면
큐알(QR)을 스캔해 주세요!



서 ‘WYD 십자가, 성모 성화 환영의 밤’이 열렸습니다. 오후 5시 30분부터 시작된 이날 행사는 참가자 700여 명의 환호 속에서 시작됐습니다. 한남동 외국인 공동체를 비롯하여 필리핀, 베트남 공동체, 상도동성당 청소년 밴드의 환영 예식에 이어서, 상징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포스트 프로그램도 진행됐습니다. 오후 7시 30분부터는 정순택 대주교님의 주례로 십자가의 길을 봉헌했으며, 떼제 기도를 바치는 시간도 이어졌습니다. 대주교님께서서는 전 세계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랬듯 “우리 젊은이들도 다가오는 2025년의 희년을 ‘희망의 순례자’의 모습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들의 기도로 수놓는 음악회가 열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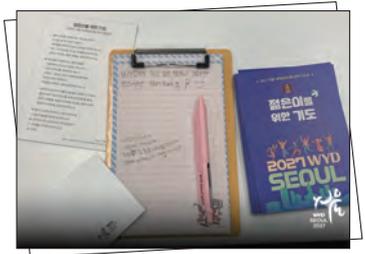
2024년 10월 8일

10월에는 목주기도 성월을 맞아 명동대성당에서 ‘젊은이들과 함께하는 목주기도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성모님께 음악으로 기도드리게 자리였던 이번 음악회는 2027 서울 WYD 준비 여정인 ‘목주기도 10억 단바치기 운동’과 뜻을 함께하는 행사였습니다. 청년들은 목주 한 알 한 알에 담긴 기도를 ‘아베 마리아’의 아름다운 선율에 담아 성모님께 봉헌했습니다.

봉사자와 함께하는 ‘WYD 열린 미사’

2024년 10월 25일부터 계속!

WYD를 준비하는 봉사자들과 함께하는 ‘WYD 열린 미사’가 봉헌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미사를 봉헌하며, 봉사자가 단지 사람의 힘이 아니라 미사를 통해 받는 은총과 성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만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되새겼습니다. ‘WYD 열린 미사’는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WYD에 관심 있는 모든 이에게 열려 있습니다.



봉사자와 함께하는 ‘WYD 열린 미사’ 전례 일정

- 1주차: 목요일 명동대성당 대성전 교구장님과 함께하는 성시간
- 2주차·4주차: 금요일 영성센터 경당 미사
- 3주차: 수요일 영성센터 경당 미사
- 5주차: 전례 없음



‘궁금한 이야기 YOUTH’는 주일학교 청소년과 청소년 사목에 함께하는 동반자(사제, 수도자, 교사, 자모회 등)의 인터뷰를 담아 신앙생활과 주일학교 이야기를 소개하는 매월 셋째 주 서울주보 청소년 특집입니다.

편집 서울대학교 청소년국 종교등부
사목부서 미디어부



열두 번째 인터뷰!

‘청소년 사도 연수’ 주역들!

청소년 사도 연수(이하 청사연)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복음화를 이루고 본당 청소년 사목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도로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 연수입니다. 5년 만에 재개된 청사연의 MVP 학생과 동반자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상봉동성당 교사
문경원 세실리아



수유동성당 고
강혜원 엘리사벳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강 엘리사벳 안녕하세요. 저는 수유1동성당에서 반주를 담당하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강혜원 엘리사벳입니다.

문 세실리아 저는 7지구 상봉동성당 4년 차 교사 문경원 세실리아입니다. 이번 연수에서 연수생들의 아침을 신나게 깨워주는 레크팀의 팀장을 맡았습니다.

혜원 학생은 조 MVP, 전체 MVP, MVP 조(단체) 등 3관왕을 달성했는데 MVP가 된 소감을 부탁드립니다.

강 엘리사벳 제 MVP 수상은 주변 친구들이 열심히 한 덕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동기부여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의견을 내는 것보다 남들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람이 멋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속한 조에서 의견을 내면 “너무 좋다.”, “아이디어 최고다.”라고 말해준 조원들 덕분에 제가 신나서 더 의견을 내고 재밌게 참여해 MVP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과거 연수생으로 참여했고, 이번에는 동반자로서 참여하게 된 선생님의 소감을 이야기해 주세요.

문 세실리아 사실 제가 교사를 시작하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학생 시절 참여했던 청사연이었어요. 2박 3일 짧은 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함께해 주신 동반자 선생님들이 존경스러웠는데 이번에 저도 그

런 동반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이 있었나요?

강 엘리사벳 저는 부스 운영이었습니다. 부스 운영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까지도 아직 조원들과 친하지 않았지만, 모두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또한, 부스 계획을 짜면서 선생님들의 고충을 조금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작은 부스 하나에도 이런 노력이 들어가는데 3일짜리 캠프를 기획하는 선생님들은 정말 대단하다고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 세실리아 아가페1 전체 나눔 시간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신앙 이야기를 많은 사람 앞에서 나누는 것 자체가 용감하다고 생각하기에, 그 모습이 참 기특했습니다. 학생들의 진심이 담긴 이야기를 듣고, 성가를 부르며 많은 눈물을 흘렸던 시간이었습니다.

연수에 참여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은총을 받은 것 같나요?

강 엘리사벳 하느님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 더 커졌습니다. 부끄럽지만 식사 전·후 기도를 성당 밖에선 까먹고 안 할 때가 많았어요. 하지만 이번 청사연을 다녀온 후 지금까지 매번 잘 하고 있습니다.

문 세실리아 요즘 신앙에 대해 고민이 많았는데, 연수에서 마주한 학생들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과 웃음을 보고 ‘내가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는구나.’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학생들이 더욱더 멋진 신앙인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옆에서 도움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과 동시에 여러 고민이 해결되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께서 주신 은총이 아닐까 싶어요.

연수에 참여한 친구들과 다음 청사연에 참여할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강 엘리사벳 2박 3일 동안 낯선 장소에서 어색하고 불편했을 텐데 함께한 친구들과 모두 같은 곳을 바라보며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해 줘서 제 첫 청사연이 정말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청사연을 고민 중인 친구가 있다면 꼭 말해주고 싶습니다. “혼자여도 좋습니다. 올 땐 혼자겠지만, 나갈 땐 모두가 하느님과 함께 나가게 될 것입니다.”라고요.

문 세실리아 청사연은 신앙심의 원동력이 되어주는 연수인 것 같아요. 밝은 미소와 열린 마음으로 모두 하나 되어 함께 즐거운 연수를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연수생 친구들 너무 고생했고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도서 |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편 가르기 너머 동행하기, 사회적 우애



김우선 데니스 신부 | 예수회, 서강대학교 교수

마지막 칼럼을 쓰는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21세기 각국에서 등장하더니, 한국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뛰어난 사상가와 예술가를 배출한 독일에서, 그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민주적 체제에서 히틀러가 출현하고 홀로코스트가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젊은 시절 저는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노벨문학상, 몰려오는 유학생 등으로 향상된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실감하는 2024년에 이런 사태가 벌어져 안타깝습니다.

이 현실을 대면하면서 본래 기획했던 글을 내려놓고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에 대해 쓰게 되었습니다. 책의 배경은 트럼프 1기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포퓰리즘이 활개치며 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대놓고 여성과 유색인을 멸시하고 비판자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는 대통령을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정치학자의 고민이 담긴 책입니다.

이 책은 트럼프처럼 행동할 수 있는 인물이 어떤 조건에서 선출되는지, 선출된 독재자가 어떻게 ‘합법적으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지 설명합니다. 저자들은 “모든 민주주의는 유사한 방식으로 무너진다.”며 잠재적 독재자를 감별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1) 민주주의의 규범을 거부하는가. (2) 경쟁자의 존재를 부인하는가. (3) 폭력을 용인하거나 조장하는가. (4) 언론이나 경쟁자의 기본권을 억압하려 드는가. 저자들은 어느 민주주의 사회나 포퓰리스트 선동가가 있고, 안보나 ‘국민의

뜻’을 명분으로 포장한다고 지적합니다. 그런 이들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두 요소를 강조합니다. 하나는 정당입니다. 정당이 그런 인물을 걸러내어 중앙에 나오지 못하게 고립시키고 무력화하는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요소는 제도와 법률보다 더 중요한 실질적 규범인데, ‘상호관용’과 ‘제도적 자제’입니다. 극단적 인물을 걸러내고 경쟁자라도 동행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질문해 보게 됩니다. “한국의 (신자) 국회의원과 정치인들은 상호관용과 자제를 실천하며 자기 정당에서 민주주의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가? 아니면 ‘악해도 좋다. 내 이익만 보호할 수 있다면!’이란 계산으로 정치를 하는가?” 그런 정치인을 감별하는 눈을 키우는 데, 이 책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포퓰리즘의 득세와 민주주의의 침식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한복판에서 신앙인은 ‘희망의 순례자들’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편 가르기는 “패거리”들의 세상 너머로 ‘사회적 우애’를 촉구하며, “모든 것이 와해되고 일관성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 연대”를, 특히 힘없는 이들에 대한 연대를 호소하십니다. (〈모든 형제들〉 101-102항) 구세주의 오심을 더욱 기다리며, 다음 구절을 묵상하게 됩니다. “부드러운 정적이 만물을 뒤덮고 시간은 흘러 한밤중이 되었을 때 당신의 전능한 말씀이 하늘의 왕좌에서 사나운 전사처럼 멸망의 땅 한가운데로 뛰어내렸습니다.” (지혜 18,14-15)



2024년 작, 감독 '빔 벤더스'



영화 '퍼펙트 데이즈'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 그동안 업로드된 <비하인드 영화캘린더>를
유튜브 채널 <가톨릭튜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본석 사도요한 신부 | 국내수학

고(故) 정진석 추기경님이 은퇴하신 후 신학교에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셨을 때, 강론 중에 신학생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아있습니다. 추기경님이 은퇴 후 처음으로 은퇴 사제 숙소의 신부님들과 함께 미사를 봉헌하시는데, 성전 벽면에 걸린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께서 하신 말씀으로, “사제여! 이 미사를 네 첫 미사처럼, 유일한 미사처럼, 최후의 미사처럼 봉헌하라.”는 내용입니다. 추기경님은 그 문구가 수십 년을 사제로 살아온 당신의 마음을 울리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사제 생활을 해나가야겠다는 다짐으로 이끌어주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추기경님은 후배들이 훗날 사제로 살아가는 때 매일의 미사성제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닌 매 순간 다른 방식으로 약동해 오는 은총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빔 벤더스 감독의 영화 <퍼펙트 데이즈>는 반복되는 것 같아 보이는 우리네 일상 안에서 ‘지금의 소중함’을 발견해 낼 수 있도록 일깨우는 작품입니다. 영화는 주인공 히라야마(야쿠쇼 코지 분)의 평범한 일상을 따라갑니다. 골목에서 들려오는 빗자루질 소리에 잠을 깨는 것으로 정갈하게 시작되는 그의 일상은 꽤 이상적으로 보입니다. 누군가는 허드렛일이라고 치부할 수 있는 공용 화장실 청소 업무를 맡고 있지만, 그는 자신이 맡은 일에 진심을 다합니다. 점심시간에는 신사에서 점심을 먹으며 필름 카메라로 나뭇잎을 통과해 오는 빛을 담습니

다. 일이 끝나면 집 근처 목욕탕에서 몸을 씻고, 돌아가는 길에 단골 선술집에서 끼니를 해결하며 한 잔의 하이볼을 곁들입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문고판 고전을 읽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다음 날, 히라야마는 다시 시작되는 하루를 다르지 않은 마음가짐으로 맞습니다. 동료 타카시(에모토 토키오 분)가 일터에 여자 친구를 데려오거나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조카 니코(나카노 아리사 분)가 갑작스럽게 자신을 찾아온 상황과 같은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기도 하지만 히라야마는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이 또한 반복되듯 다가오는 일상과 마찬가지로 소중하고 유일한 순간으로 여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사회는 일상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체험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반복되듯 다가오는 우리네 일상이 하루아침에 다시는 찾아오지 못할 뻔한 사태를 경험하게 되면서, 일상 안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는 전과는 달라진 시선으로 마주하게 됩니다. 더불어 우리 사회가 당연하게 누려온 가치가 순식간에 유린당하는 장면을 마주하며, 그 가치를 이전보다 더욱 소중하고 각별한 마음으로 여기게 됩니다. 같은 날의 당연한 반복 같지만 매일을 다른 날로 인식하며 일상을 맞이하는 영화 속 히라야마의 모습처럼 우리도 ‘당연함’이라는 늪에서 벗어나, 수많은 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구축해 온 가치와 그 가치를 누리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하고 특별하게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2025년 정기 회년 장엄 개막 미사 및 전대사 안내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선포하신 2025년 정기 회년(12월 24일~2026년 1월 6일)을 맞아, 우리 교구의 정기 회년 장엄 개막 미사 및 전대사 조건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2025년 정기 회년 장엄 개막 미사

일시: 12월 29일(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가정 축일) 낮 12시

장소: 주교좌 명동대성당 / 집전: 교구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구 주교단

2) 2025년 정기 회년 전대사

2025년 정기 회년 기간 중 **12월 29일 ~ 2025년 12월 28일**에

기본 요건

- ㉠ 각자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받고, ㉡ 미사 영성체를 하고,
- ㉢ 교황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며(매일미사 첫 페이지 교황님의 기도 지향 참조)

기본 요건과 더불어

- ㉣ 아래의 회년 전대사 수여 순례지 중 한 곳 이상 방문하여
 - (1) **(긴) 순례의 경우:**
미사 또는 말씀의 전례 또는 시간 전례(성무일도 독서기도, 아침기도, 저녁기도 중 하나), 또는 십자가의 길 또는 묵주기도를 바칩니다.
 - (2) **거룩한 장소로의 경건한 (비교적 짧은) 방문일 경우:**
 - ㉤ 성체조배와 묵상기도 후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며,
 - ㉥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께 간구하면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한편, 첨부된 교황청 내사원의 '전대사 수여 교령'의 (III. 자비와 참회의 활동)을 실천할 때에도 전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
 - ㉧ '자비의 육체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 '자비의 영적 활동'을 통한 전대사 / ㉩ 성당이나 다른 적합한 장소에서, 교황님의 뜻과 부합하여 열리는, '대중 선교 활동'이나 영성 수련 혹은 공의회 문헌이나 가톨릭 교회 교리서 강좌에 신실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써도 대사를 얻을 수 있습니다.(교황청 내사원, 2025년 회년 동안 대사를 수여하는 교령 참조)

* 2025년 정기 회년 전대사 수여 지정 순례지

주교좌 명동대성당 · 용산 성직자 구역 · 천주교 용인공무원원 성직자 구역

* 천주교 서울순례길 안에 있는 순례지

- 1코스 <말씀의 길>:** 명동대성당 · 김범우의 집 터 · 한국 천주교회 창립 터 · 좌포도청 터 · 종로성당 · 광화문 성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 석정보름우물
- 2코스 <생명의 길>:** 가회동성당 · 광화문 124위 시복 터 · 형조 터 · 의금부 터 · 전옥서 터 · 우포도청 터 · 경기감영 터 · 서소문 밖 네거리 순교성지
- 3코스 <일치의 길>:** 종림동 약현성당 · 당고개 순교성지 · 새남터 순교성지 · 절두산 순교성지 · 노고산 성지 · 용산예수성심신학교 · 왜고개 성지 · 삼성산 성지

※ 순례 코스 중 순례지 한 곳 이상 방문하여 대사의 기본 조건을 이행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심으로 죄를 뉘우치고 있으나 중대한 이유로 다양한 장엄 거행과 순례와 경건한 방문에 참여할 수 없는 신자들(특히 봉쇄 수도원의 수도자들, 그뿐 아니라 노인들, 병자들, 수감자들, 그리고 병원이나 그 밖의 돌봄 시설에서 일하면서 병자들에게 지속적인 봉사를 제공하는 이들)은, 그에 직접 참여하는 신자들과 영적으로 결합해 있으면서, 자기 집에서 또는 자신들을 매어 두는 어느 곳에서든(예를 들어, 봉쇄 수도원, 병원, 요양원, 감옥의 경당), (특히 교황 성하나 교구장 주교님의 말씀이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전파되는 때에) 주님의 기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승인받은 신앙 고백 그리고 성년의 목적에 부합하는 그 밖의 기도를 바치고, 자기 삶의 고통이나 고난을 봉헌한다면, 동일한 조건 아래, 회년 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월 25일(수)은 '주님 성탄 대축일'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은 하느님의 아드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사건을 경축하는 날입니다. '주님 성탄 대축일'에는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을 성대하게 기리고자 구유 경배와 함께 밤, 새벽, 낮에 세 번의 미사를 봉헌합니다. 밤 미사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사실을 전하는 복음을, 새벽 미사는 목자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복음을, 낮 미사는 말씀이 사람이 되신 강생의 신비를 전하는 복음을 봉독합니다. '성탄 시기'는 주님 성탄 대축일부터 주님 세례 축일까지입니다.

가톨릭평화방송 TV · 라디오 성탄 미사 생중계

명동대성당 밤미사	12월 24일(화) TV 23시 50분 · 라디오 24시
명동대성당 낮미사	12월 25일(수) TV · 라디오 12시
바티칸 밤미사	12월 25일(수) TV 2시 50분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2007년 12월 27일 정치윤 이냐시오 신부(59세)
- 2011년 12월 26일 이계광 세례자 요한 신부(90세)
- 2022년 12월 27일 백민관 테오도로 신부(95세)
- 2023년 12월 27일 정의채 바오로 몬시뇰(98세)

교구청 알림

이른어른이(에비 청년) 생명 피정

때: 2025년 1월14일(화) 13시~15일(수) 16시

곳: 성 앙베르센터 / 대상: 만 19~20세

모집기간: 2025년 1월3일(금)까지 신청

회비: 10만원 / 주최: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문의(신청): 02)727-23251

2025학년도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신입생 모집(정시)

사제지망 일반예신 학생 및 체계적인 신학 공부를 희망하는 수도자, 남녀 평신도를 모집합니다

지원자격: 고교졸업(예정)자, 수도자, 만학도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한 자

원서접수: 12월31일(화)~2025년 1월3일(금) 인터넷 접수

문의(입학): 02)740-9704, 9705

홈페이지: <https://songsin.catholic.ac.kr>

가톨릭 임상사목교육(CPE) 교육생 모집

위기나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가족, 교육, 이웃)

을 돌보기 위한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영적돌봄

방법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 문의: 02)727-2434

교육프로그램: 정규반(16주), 단기반(8주)

서울센터: 가톨릭회관 임상사목교육센터

수원센터: 성빈센트병원 임상사목교육센터

2025년 상반기 가톨릭 성음악아카데미 교회음악지적경쟁 과정 모집

원서접수: 2025년 1월6일(월)~24일(금) 아카데미

사무국 전화문의의 요망

대상: 음대 졸업자(2년제 포함) 및 본 아카데미 실

기전문과정 중급 이상의 실기 능력을 가진 자

교육방법: 이론과목 수강 및 연주를 위한 실기레

슨, 토요일 미사를 통한 실제 전례중심 교육

곳: 최양업홀(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문의: 02)393-2213~5(<http://www.casm.co.kr>)

발달장애인 첫영성체 교육 담당자 연수

때, 곳: 2025년 1월5일(일) 10시~17시, 영성센터(명동)

회비: 5만원(교재, 식사 포함)

접수: 이메일(cafema@cafema.or.kr) 접수 / 양식-홈페이지

문의: 02)727-2107 청소년국 장애인신앙교육부

가톨릭 인성교육 봉사자 모집

청소년들에게 희망이 되어주실 '인성교육' 봉사

자를 학교사목부에서 모집합니다

대상: 견진성사받은 신자, 만 20세~60세(2005~1965년생)

곳: 가톨릭청소년회관(역삼동)

교육: 2025년 1월7일~9일, 1월14일~16일(2주간, 총 6일)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홈페이지에 서류양식)

접수기간: 11월26일~2025년 1월3일

회비: 10만원(30시간 특강, 식대, 간식비 포함)

문의(기타): 02)553-7320(일, 월 휴무) 학교사목부

사무실 / 홈페이지(www.kycc.or.kr)

갤러리1898 전시 안내 / 문의: 02)727-2336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언덕 위에 등대-
 명동대성당> 전관
 전시일정: 12월24일(수)~31일(화)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미사
 주제: 아픈 이들과 함께하는 원목실
 때, 곳: 12월26일(목) 19시, 명동대성당(주교좌)
 주최: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주관: 병원사목위원회 / 문의: 02)727-2073

민족화해위원회
 1)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2월24일(화)은 성탄대축일 전야미사, 12월31일
 (화)은 교구청 종무직으로 인해 미사가 없습니다
 문의: 02)727-2420

2) 후원회 미사
 대상: 후원회원 및 누구나 / 문의: 02)727-2415
 때, 곳: 12월27일(금) 14시, 명동대성당 문화관 2층(소성당)

2025년 상반기 복사학교 신청 안내(용문청소녀수련장)
 때: (금) 오전 10시~(토) 오후 4시

1차(중급)	2월22일(토)~29일(일)	5차(초급)	4월4일(금)~5일(토)
2차(중급)	2월24일(일)~25일(화)	6차(초급)	5월30일(금)~31일(토)
3차(초급)	3월21일(금)~22일(토)	7차(초급)	6월6일(금)~6일(토)
4차(초급)	3월28일(금)~29일(토)	8차(초급)	6월13일(금)~14일(토)

신청방법: 용문청소녀수련장 홈페이지-커뮤니티-공지사항
 신청일: 2025년 1월15일 10시 / 문의: 010-7931-6985

인준단체 알림

모임

미리내천주성삼성직수도회 성지순례
 때, 곳: 2025년 4월24일~5월5일, 성모발현지
 회비: 520만원 / 문의: 010-7374-3217

11강남지구 성령기도회 / 문의: 010-9518-1601
 때, 곳: 매주(금) 19시~21시45분, 역삼동성당 경
 환당(주차 가능) / 강의-축복기도: 이상기 회장

서울대교구 성령쇄신봉사회 철야기도회
 강사: 박원구 신부 / 문의: 010-3242-6868
 때, 곳: 2025년 1월27일 18시~22시(미사 21시), 전철 2
 호선 신림역 5번 출구 버스 500-504-651 환승, 천주
 교성명봉사회 정류장 하차 / 울동, 찬양, 고해성사

토아울람 후원회 화요 치유 피정
 때, 곳: 매주(화) 12시~16시, 가톨릭회관 7층
 담당: 김종국 신부 / 문의: 010-5514-4077 회장
 12월24일 이상기 회장 12월31일 김현우 신부

성 베네딕도 왜관 수도원 전례·성지순례
 문의: 010-3807-1784 라이스돌(왜관 성 베네딕도 피정의 집)
 2025년 2월15일~17일(대구 17곳), 3월1일~4일(전주 11곳·
 국내 광주 4곳), 3월15일~18일(부산 8곳·마산 6곳), 4월23일~27
 일·7월5일~9일(울릉도·독도) / 출발: 가톨릭회관 후문
 동유럽 5월3일~18일, 체코·폴란드·메주그리에

예수회 이나시오 영성연구소 / 문의: 02)3276-7799
 영신수련 침묵 피정 12월28일~2025년 1월6일, 예수마음배움터
 일상생활 속의 영신수련 영성·교리·신학 통합강좌와 영적수련
 화요오후반 14시~16시·목요저녁반 19시
 ~21시, 비대면 온라인(8주 과정)
 담당: 권효섭 신부 / 2025년 1월3일까지 접수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지향
 대상: 중재기도(특별기도) 필요하신 분
 때: 2025년 1월1일~31일 / 문의: 010-8867-3217

성 이나시오 영신수련 피정
 피정동반자: 조현철 신부(예수회)
 때: 2025년 2월6일(목) 17시~9일(일) 16시
 곳: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 집 / 회비: 30만원
 문의(접수): 064)739-0951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2025년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대피정
 내용: 새해맞이 성모님 봉헌식, 미사, 성체조배,
 성체거동 / 주최: 사랑이 피는 기도모임(AYG)
 미사집전: 구요비 주교 / 대상: 가톨릭 청년
 때, 곳: 2025년 1월4일(토) 15시~18시, 가톨릭 의
 과대학 의과학연구원 2층 대강당(서울성모병원)
 예약 계좌: 국민은행 794001-04-122952
 회비: 1만원 /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신부들과 함께 제주 성지·역사·생태 순례와
 성무일도·미사를 함께하는 산들평화순례 피정
 때: 한라산 눈꽃산행 1월17일~19일·1월23일~25
 일·2월8일~10일·2월14일~16일·2월22일~24일,
 추자도포함 성지순례 3월1일~4일·3월9일~12일
 ·4월12일~15일·4월27일~30일·5월4일~7일·5월26
 일~29일, 생태순례 3월17일~19일·3월22일~24일
 ·3월28일~30일 / 문의: 064)756-6009, 02)773-1463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침과 성지순례
 제주여행, 자연순례(2025년 피정 접수중)
 대상: 개인, 가족, 본당 구반장, 소규모 모임
 때: 한라산 포함 1월11일~13일·1월16일~18일·1월20일
 ~22일·2월7일~9일·2월21일~23일·2월25일~27일, 3월
 1일~3일·3월8일~10일·3월13일~16일(추자도)·3월18일
 ~20일·3월23일~26일(추)·3월29일~31일·4월1일~3일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제주 자연 피정

교육

어른 초등학교·중학교 학생 모집(한국여성생활연구원)
 교육역력 인정 초등학교·중학교 과정 / 02)727-2471

스테인드글라스 성물 만들기(가톨릭스테인드글라스회)
 자세한 내용 카페(lukeglass.com) 참조 / 문의: 02)324-0852

예수회센터 겨울방학 특강
 2025년 1월 개강 / 현장 강의 또는 동영상 강의 선택 수강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kr)
 (수) 구약으로 만나는 하나님의 여러 얼굴들 김민 신부
 (목) 영성과 심리의 통합 세번재 길 최지원 수녀
 (금) 명확로 만나는 그리스도교 영성 박혜원 강사

가톨릭교리신학원 신입생 모집
 성경과 교리 등 가톨릭 신학의 체계적 교육
 대상: 세례 3년 이상 견진자, 고졸 이상, 만 75세 미만
 15명 미만 지원학과 개강 안 됨 / 문의: 02)747-8501
 접수: 2025년 1월17일(금)까지 / ci.catholic.ac.kr

교리교육학과	10시50분~15시40분(2년, 주5일)	신교사(교리교사)
종교교육학과	19시~21시35분(2년, 주4일)	자격증 수여
신학심화과정	10시50분~15시 40분(1년, 주3일)	본원졸업생(교리·종교·통신과 정) 및 이에 준한 과정 이수자

벨칸토 성악 교실(국악성가연구소)
 성가·가곡, 초보자 환영
 때: (금) 10시 / 010-2252-2974 강신옥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1분 거리

미사반주법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 교육
 때: 2025년 1월6일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쿠나소오르간연구소 / 문의: 02)338-3793

노틀담 첫영성체 교리서 비대면 연수(교리교재연구소)
 때: 2025년 1월11일(토)·13일(월) / Zoom 이용
 다음카페: '노틀담 첫영성체' 검색 / 010-3829-7667

이론 수강생 모집(입문반-실기)
 때: 2025년 1월2일~3월6일 매주(목) 10시~13시(10회)
 곳: 과달루페 외방 선교회(주최) 서울 분원
 문의(접수): 010-8618-3451 송석철 교수

예비자 통신교리(우편·사이버·신자재교육)
 주소: 서울시 중구 장충단로 188, 분도빌딩 506호
 주최: 가톨릭교리통신교육회 / 회비: 1만원
 문의: 02)2274-1843, 4 / 홈페이지: www.cdcc.co.kr

'자아의 통합과 영성' 온라인 동영상 강의
 때: 2025년 1월10일~2월21일 매주(금)
 동영상 녹화 강의 발송 / www.jjscen.or.kr
 문의: 02)726-0700 전진상영성센터(명동)

수원교구 사이버성경학교 수강자 모집
 대상: 성경공부를 원하는 모든 분
 접수: 검색창 '사이버성경학교' / 365일 모집
 신설: 키워드로 읽는 성경-심화 창세기
 문의: 031)360-7635, 010-7470-7966

2025년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우편) 신학과정 모집
 대상: 수도자 및 평신도(만 18세 이상)
 내용: 가톨릭 신학 전반 24권 교재, 26과목 공부
 원서접수: 2025년 2월14일(금)까지
 문의: 02)745-8339(http://ci.catholic.ac.kr)

평신도를 위한 기도훈련-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대면)
 주제: 일상 삶에서 하느님 만나기
 대상: 성서를 통하여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싶은 신자
 때, 곳: 2025년 1월8일부터 매주(수) 10시30분·19
 시40분(6주), 한국CLC 강의실
 1월2일까지 접수 / 문의: 02)333-9898 한국CLC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5학년도 전기 신입생 모집
 교황청 승인 교회법학 전문가 양성 기관
 원서접수: 전기 2차 2025년 1월6일(월)~23일(목) 17시
 모집과정: 제1과정(예비과정) 철학·신학-62학점
 (수업료 학기당 100만원), 제2과정(석사과정) 교회
 법-88학점(수업료의 50% 감면 장학금 혜택)
 문의: 02)2164-6521(https://gscl.catholic.ac.kr/gsccl/index.do)

모집

가톨릭여성심리상담소 봉사자 모집
 전화상담 봉사하실 여성 신자 / 문의: 02)990-9360

서초동성당 첼름 오케스트라 / 문의: 010-2779-1714
 대성전공: 호른, 트럼펫, 트럼본, 테너 / (일) 21시 미사

가르멜재속회원 모집(알베르트공동체)
 대상: 만 55세 이하 세례 견진자
 모임: 매일 넷째주(일) / 문의: 010-7673-5013

서울대교구 가톨릭청년미술가회 모집

자세한 내용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가청회' 검색 후 문의 또는 전화·문자(010-3098-2192) 문의

한우리정보문화센터 식당 자원봉사자 모집

때, 곳: 평일 10시~13시(요일 협의), 센터 B1 문의(접수): 070-7209-2938 전화 및 온라인 접수

트리니타스여성합창 단원 모집(시스마 음악원)

전통 성음악에 관심 있으신 분, 성악 전공자, 성가대 유경험자 환영 / 문의: 010-3300-2505

가톨릭시니어합창단 2025년 단원 모집

대상: 55세 이상 신자 누구나
모집기간: 2025년 1월1일~31일 / 문의: 010-5245-2848
심준보(평화를 노래하는 가톨릭동북아평화연구소)

아쿠아스합창단 단원 모집

1967년 창단된 아쿠아스합창단이 88회 정기공연(구노의 오라토리오 '구원, Redemption', 2025년 4월)을 함께 할 단원(55세 이하, 전공무관)을 찾습니다
오디션 문의 문자(010-8000-3194 총무)만 가능

재속프란치스코회 비오형제회 회원 모집

카푸친작은형제회의 영적보조를 받으며 세상 속에서 프란치스코영성을 힘차게 살아가고자 하는 분들은 주저없이 연락주세요 가톨릭 세례를 받으신 성인남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 문의: 010-5044-8442

청소년 자원봉사자 모집(성빈센트청소년회)

내용: 연탄나눔, 농촌체험, 환경캠페인, 해외봉사, 사회복지시설방문 / 대상: 자원봉사에 관심있는 초6~고3
곳: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6번 출구
문의: 02)926-3440, 010-6880-9605(www.stvin.or.kr)

미사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후원회 미사

때: 12월27일(금) 14시~16시 / 문의: 02)929-2977
곳: 골롬반선교센터(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새천년복음화학교 후원회 월례미사

때: 2025년 1월16일(목) 낮 12시 / 문의: 02)753-8765
곳: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미사: 조성풍 담당 신부

용산성당 영어미사 봉헌 / 문의: 02)719-3301

용산성당 중고등부 미사는 매주 영어미사로 봉헌됩니다
때, 곳: 매주(일) 11시, 용산성당 소성전

절두산순교성지 마리아연례회 미사 / 문의: 02)3142-4434

내용: 세상을 떠난 이들을 위한 연도 및 미사
때, 곳: 12월27일(금) 11시30분, 절두산 순교성지

웅기장학회 월례미사

때, 곳: 12월23일(월) 11시, 명동대성당 파밀리아 채플
주례: 이창원 신부, 박신언 몬시뇰 공동집전
강론: 고준석 신부 / 우리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빌며, 우리보다 앞서 가신 김수환 추기경님과 우리 각자 조상들의 영혼을 위해 봉헌합니다
문의: 02)727-2525 사무국

미래사목연구소 후원회 미사

때, 곳: 12월31일(화) 11시, 미래사목연구소(김포시 고촌읍 신곡로 134) / 문의: 031)986-7141

안내

돌아보며 깨닫기 영성심리상담

문의(예약): 010-3173-2665 최영민 신부(예수회)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문의·국내입양상담: 02)764-4741~3(www.holyfac.or.kr)

볼길 심리상담연구소(마리스타 교육수사회)

전문상담: 청소년, 개인, 가족, 단기부부상담 / 첫회 무료
곳: 합정 / 문의(예약): 010-8981-8356 (전화상담 가능)

정신분석심리상담센터 IPC

대상: 심리적, 정신적, 영적인 고통으로 전문적인 심리상담치료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
곳: 선릉 / 문의: 010-9139-1937 마리아의 작은 자매회

익산 성글라리수도원 재건축을 위한 도움 요청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공사비가 부족합니다
주님 사랑으로 도와주시길 청합니다 / 010-6680-0692
계좌: 국민 753501-01-480346 (재)천주교유지재단

까리마스 알코올회복센터

알코올의존자 당사자 주·야간 교육, 가족교육 운영
자녀교육: 고통받고 있는 성인자녀를 위한 교육-매주(수) 19시 / 문의: 02)521-2364
회복을 위해 까리마스알코올회복센터와 함께해요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블자비의수녀회)

꼬메스심리상담소(도미니코 수도회)

상담을 통한 치유와 성장이 있는 따뜻한 동행
내용: 가족, 부부, 갈등, 심리, 영적성장
방법: 대면, 온라인, 전화 모두 가능
문의: 010-3201-0520 노경덕 신부(상담자)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연수원) 운영

대천해수욕장 관광 및 휴양, 개인 피정, 매일미사
대천교구 성지순례를 위한 숙소로 이용 가능
대천해수욕장 요나성당 인근 성지: 갈매꽃 순교성지, 서지곶 성지, 청양 다라곶 성지 / 문의: 041)934-7758
인터넷 검색창에 '요나성당 연수원' 검색
홈페이지: https://yonaresort.modoo.at

바보의나눔 유튜브채널 '러브온탑'

재단법인 바보의나눔이 대한민국 탑스타들의 선한 영향력을 담아 '값을 쌓은 만큼 기부'가 되는 '신개념' 기부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매주(금) 오후 6시 스타들과 함께하는 러브온탑,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
유튜브 검색창에 '러브온탑'을 입력하세요
(www.youtube.com/@러브온탑) / 협찬 문의: 02)727-2507(fund@babo.or.kr) 바보의나눔 모금홍보팀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전문병원, 중독중점 입원 및 외래 통일 치료(도박·인터넷 게임) / 홈페이지: www.karf.co.kr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의학과 진료
때: (월-금) 9시~17시 / 문의(진료·입원): 031)810-9200
곳: 고양시 전철 3호선 백석역 7번 출구 5분 거리

유관단체 알림

한민족돕기회 통일기원 미사

주례: 신희준 신부 / 문의: 010-8126-5676
때, 곳: 12월31일(화) 14시, 가톨릭회관 1층 소성당 101호

베리타스심리상담센터 / 문의: 02)776-7726

심리상담 전문센터	미래놀이·미술치료 / 가톨릭회관 501호(명동) 정서적·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는 노인·아동·청소년·성인, 자녀·부부갈등, 중독, ADHD, 우울, 공황장애, 행복한 삶을 원하는 분, 심리검사
토닥토닥 마음챙김	매주(화) 10시~12시
미술심리상담사 자격교육과정	2025년 1월6일~2월10일 (월) 10시~15시

직원모집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모집

분야: 사제식당 조리원(계약직) / 문의: 02)740-9707, 8
홈페이지(https://songsin.catholic.ac.kr) 모집공고 참조

요셉의원(서울 영등포) 직원 모집 / 문의: 02)2634-1760

분야: 방문진료 전담 간호사 1명 / 요셉의원 홈페이지(www.josephclinic.org) 공지사항 참조, 지원서 접수

문정2동성당 직원 모집 / 문의: 02)408-0179

분야: 사무원(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대상: 세례받은 지 3년 이상으로 사무행정, 회계, PC(한글·엑셀) 가능한 분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2월31일까지 이메일(rgkim@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 특수사목사제관(중구) 주방근무자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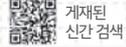
대상: 세례받은 분 / 분야: 주방근무자 1명(계약직)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사무실에 신청)
2025년 1월12일(일)까지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서울대교구청 빈민사목위원회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빈민사목 활동에 이해를 갖춘 분
분야: 교구사무원 2명(계약직, 정규직 전환 가능)-운영지원팀 1명(회계·후원회관리·홍보·행정 등), 현장활동팀 1명(현장조직·사회주력 연계사업 등)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 업무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 이메일 문의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연락) / 2025년 1월12일(일)까지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수도회 성소모임	때	곳	문의
천주교서울교제선교회	수시	선교회	02)749-4596, 010-2749-4596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2월27일(금)~29일(일) 14시 / 그 외 전화	수녀원(보문동)	010-9353-1773 (미리 연락)

서울주보 '알림'에 게재되는 내용에 대한 책임은 각 신청 단체에 있습니다



신간
**어쩌면,
삶을 견디게 하는 것들**

방중우 지음
라이프출판사 | 232쪽 | 1만6천8백원
문의: 02)466-1238

저자는 어린 시절 어머니의 뜻에 따라 사제가 되기로 결심한 사언부터 염세주의자 소년, 문학 청년을 거쳐 신학대학에 입학하고, 그 후 이탈리아 유학 생활을 거치는 동안의 다양한 만남과 경험들을 솔직하고 담담하게 풀어놓는다. 저자의 유머와 통찰을 버무린 에세이를 담은 이 책은 삶을 힘겹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가슴 따뜻한 위로를 건넬 것이다.



신간
**전례로 살펴본
일곱 성사**

주세페 페라로 지음
가톨릭대학교출판부 | 552쪽 | 2만7천원
문의: 02)740-9718

전례의 중심에는 성사가 자리잡고 있으며, 성사는 모든 그리스도인 존재의 정점이자 원천으로 모든 구원 활동의 기초와 영감을 제공하며, 총명한 인간 실현을 구성한다. 저자는 이 책에서 일곱 성사의 전례 기도문에서 드러나는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를 밝혀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방향을 제시해 준다.



신간
**축복받은 성경 읽기
잠언 · 코헬렛
아가 · 지혜서**

가톨릭성서모임 엮음
성서와함께 | 84쪽 | 4천원
문의: 02)822-0125

이 책은 잠언, 코헬렛, 아가, 지혜서를 충실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쉬운 문제집' 시리즈 중 하나이다. 별다른 주석서나 해설서가 없어도 성경만 보면 풀 수 있는 쉬운 문제들을 담아, 말씀의 봉사자나 지도자가 없어도 누구나 진행할 수 있는 단순한 구성을 취했으며, 개인 혹은 단체에서 성경 읽기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신간
희망의 순례자들

김정용 지음
바오로딸 | 100쪽 | 1만원
문의: 02)944-0944

2025년은 교회가 '희망의 순례자들'이라는 주제로 살아가는 정기 회년이다. 이 책은 먼저 회년의 역사와 회년의 요소를 소개하고 회년 대사를 얻기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이어서 성경과 문헌을 바탕으로 회년의 참된 의미를 설명하고 희망의 순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나서도록 초대한다.



cpbc 방송

cpbc 가톨릭평화방송 성탄 특집 다큐

죽음에서 돌아오다 - 메일린의 기적

방송 일정: 60분, 2부작(총 120분) 연속 방송
본방송 | 12월 24일(화) 21시 50분
재방송 | 12월 25일(수) 13시 30분, 12월 29일(주일) 10시, 2025년 1월 1일(수) 19시
CPBC플러스(OTT) | 12월 24일(화) 공개

21세기에 일어난 놀랍고도 아름다운 기적 이야기! 2012년 프랑스 리옹에서 세 살짜리 여아가 음식물이 목에 걸려 질식사해 뇌사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의사들이 포기하고 안락사를 권유했던 메일린은 폴린 자리코의 전구를 통한 9일 기도로 기적으로 살아났다. 바티칸이 기적으로 승인하고, 전구자 폴린 자리코는 시복되었으며 열다섯 살의 소녀로 성장한 메일린은 현재 프랑스 안시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재)같이걷는길' 박용만 이사장이 출연하여 진행한 이 특별기획 다큐멘터리는 프랑스의 여러 도시와 바티칸 등을 탐사하면서 15일에 걸친 해의 로케를 통해 바티칸이 승인한 현존하는 기적의 현장과 목격자, 증인들을 만나 완성하였다. 이 다큐를 위해 바티칸 교황청의 핵심부서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기적 분야 최고의 권위자도 인터뷰에 응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번 다큐는 탄탄한 구성과 감동적인 내용으로 시청자들에게 오래 기억될 성탄 선물로 다가갈 것이다.